불교사상으로 사회 현안 연구 '연사모' 창립

1월 22일 대원각사에서 창립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매달 넷째 주 토 대원각사서 정모
다도 인문학 · 환경 등 현안 연구


불교사상연구모임 '연꽃을 사랑하는 모임' 이 1월 22일 부산 장산 대원각사서 창립법회를 했다.

인문학과 환경 등 현대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모임 '연꽃을 사랑하는 모임' (이하 연사모)이 창립됐다. 연사모(지도법사 안도)는 1월 22일 부산 장산 대원각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창립법회에서는 지도법사 안도 스님의 인사말과 차(茶) 인문학을 이끌어 갈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원 원장, 이두석 前 국제포교사회 부울경지부 명예회장, 황종연 스마트커플러 주식회사 대표 등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 여승익 문학 작가가 시(詩)를 낭송하며 창립을 축하했으며 사홍서원 후 기념촬영으로 1부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2부에서는 대원각사에서 직접 채다한 녹차를 마시며 '끽다거' 로 선법문을 전해준 조주선사의 '다선일미' 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원 원장이 담당했으며, 차 한 잔에 담긴 선(禪)의 정신을 안내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김대철 원장은 "진리의 구도자에게 '차 한 잔 하라' 는 조주선사의 가르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선을 설명하는 방편이었다. 차의 맛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알 수 없다. 직접 마셔야 차 맛을 아는 것처럼 선도 마찬가지다. 끽다거는 조주 선사의 친절한 가르침이었다"며 "앞으로 정기모임에서 차와 불교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차와 불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고 강조했다.

연사모는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대원각사에서 정기모임을 진행한다. 현대 사회에서 참된 힐링이 무엇인지 제안하며 불교와 차에 관련한 인문학 강의와 불교 논문 연구 등 다채로운 불교 공부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환경을 주제로 사회 주요 현안을 연구하며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창립 멤버는 김대철 원장을 비롯해 여승익 작가, 주순희 부산동래구의회 의장, 이두석 국제포교사, 황종연 열린포럼 전 사무총장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20여 명이 동참한다.

특히, 정기모임 장소인 대원각사는 1000여 평의 녹차밭이 조성되어 있고 부산 해운대구 장산에 위치해 넓게 펼쳐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자랑한다. 또 달빛걷기명상, 금강승불무도 템플스테이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반인들에게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불교복합문화공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명상치유센터 참살이를 운영해 쉼터를 찾는 현대인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연사모는 "불교인문학 공부를 통해 지혜를 증진하고 힐링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지도법사인 안도 스님을 도와 환경을 위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현재 지도법사 안도 스님은 부산불교환경연대 준비모임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지도법사 안도 스님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각자 떨어져 있는 개체라고 생각한다. 화엄경의 내용을 보면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며 " '둘이 아닌 하나' 라는 이치에 따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연사모는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성장할 것이다. 아름답고 훌륭한 사회를 위해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청소년포교 위한 '쌀나눔 운동' 전개

불교쌀나눔사회적협동조합 창립
1월 26일 부산 청심사서 창립총회



불교쌀나눔사회적협동조합(초대이사장 유지호 · 이하 쌀나눔협동조합)이 1월 26일 부산 청심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쌀나눔협동조합은 쌀 한 포대 나눔 운동을 전개해 교육 장학사업, 취약계층 생활용품 제공사업 등을 진행한다. 특히 장학금을 수여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법회를 열고 불자 청소년 양성에 앞장 설 예정이다.

창립총회에서 초대이사장으로 유지호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직전회장이 추대됐다. 유지호 초대이사장은 청소년전문가로 어린이 포교기구 동련,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조계종어린이청소년위원회 등에서 근무했다.

쌀나눔협동조합 설립에는 청심사 주지 법진 스님과 이도경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 성수용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이 함께 뜻을 모았으며, 장안사(무관 스님), 해동용궁사(연규 스님), 금용사(동암 스님), 옥천사(무문 스님), 선광사(성문 스님), 청량사(보혜 스님), 약수사(혜우 스님), 여래사(종우 스님), 용문사(용하 스님), 청심사(법진 스님), 자모선원(효문 스님)을 비롯해 왕선자 前 부산여성불자회장, 해동고 파라미타 졸업생 등이 쌀나눔을 후원한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총聯 박수관 회장 소외이웃 후원

부산 진구청에 백미 10kg 1450포 전달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 신도회장이 1월 24일 부산 진구청에 백미 10kg 1450포(50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수관 회장과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원들이 동참했으며, 전달한 백미는 지역 내 소외 이웃에게 회향될 예정이다.

박수관 회장은 매년 명절이면 통 큰 기부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불자 기업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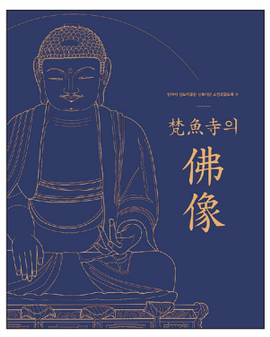
명절 뿐 아니라 인재 불사를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에도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양로원, 재활원, 복지관 등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성금과 성품을 지속적으로 후원한다. 고향인 여수에서는 박 회장을 기부천사라 부른다.

30여 년 동안 여수 지역민들과 학생들의 장학금, 지역 발전 기금, 화재 성금 등 기부금만 530억이 넘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유물도록 〈범어사의 불상〉 발간

주요 소장 불상의 도상과 가치 소개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소장 유물 도록 〈범어사의 불상(梵魚寺의 佛像)〉을 발간했다.

도록에는 범어사 전각 9개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의 도상과 내용, 그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

대웅전의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과 복장발원문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팔상전 삼존불의 도상, 나한전의 나한상과 불상들의 착의형식과 선묘를 자세히 보여준다. 그리고 비로전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구성된 삼존불과 불상에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넣는 복장유물을 자세히 소개했으며, 미륵전의 '목조여래좌상' 과 주불이 앉아 있는 하대석의 조형미를 소개했다. 그 외 관음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관음보살좌상' 과 관음보살을 향해 합장하고 있는 '선재동자상' , 지장전과 독성각, 천왕문 등에서 볼 수 있는 불상과 사천왕상을 소개한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천년고찰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는 범어사에는 오랜 유물이 전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불상들을 모시고 있다. 본 도록에서는 주요 불상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자 하였다"며 "사찰은 종교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쉼 없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각 전각이나 박물관에서 불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반면 불화 속 주체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다소 어렵게 여겨지기에 도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불교역사와 문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불화의 도상과 내용 그리고 가르침들을 소개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쿠무다 신축개관기념 특별소장展 개최

2월 16~1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1층
2월 23일~3월 8일 서울 인사아트센터



복합명상문화센터 쿠무다(이사장 주석)가 신축 이전개관을 기념하는 특별 소장전 '인연(因緣)' 을 개최한다.

특별 소장전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1층 시실리룸에서 진행되며, 2차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 1층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1차 소장전 개막식은 2월 16일 오전 11시이다.

전시에서는 이사장 주석 스님이 직접 기획했으며, 쿠무다가 소장해 온 불화 및 서예작품 그리고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특별소장전은 과거와 현대, 종교와 문화, 예술과 우리 사회가 소통하기를 원하는 쿠무다 정신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될 작품은 삼락자 석정 스님의 달마도와 이승희 작가의 '프레임 속의 도자기 체어' , 변훈 작가의 '달 항아리' , 서칠교 작가의 '포대화상' 등을 비롯해 불교 선화 50여 점, 일반 회화 20여 점, 도자기 및 공예품 등 다채롭다.

쿠무다는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과거와 현대를 넘나드는 우리 문화의 가치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시장 자체가 관람객의 쉼터가 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예술 전공자들의 장학금 조성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후원, 불교문화 컨텐츠 개발 등에 사용될 기금 조성에도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함안불교사암聯, 자비의 쌀 전달



함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명)가 1월 21일 함안군청 2층 군수실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 백미 80포(300만원 상당)는 설 명절을 맞아 함안군 지역 저소득계층 8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함안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원명 스님, 칠보사 정광 스님, 발원통사 영공 스님, 조용찬 함안연합회 신도회장, 조근제 함안군수가 참석했다.

회장 원명 스님은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합회 스님들께서 마음 내어서 마련하게 되었다"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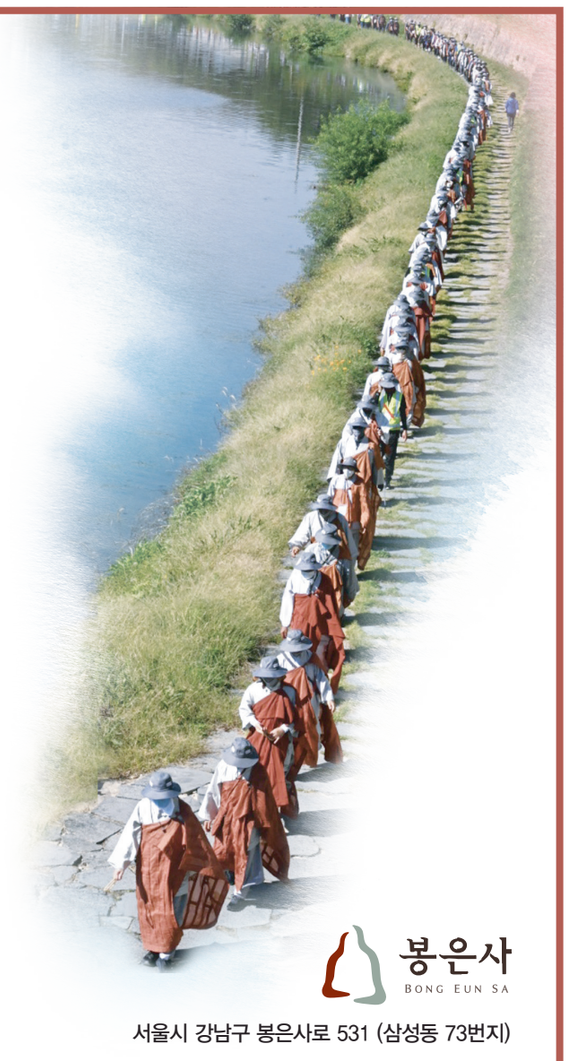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